

# 담양농업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양성

### 제13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 개최 영농애로기술 해소·첨단과학기술 접목

담양군은 24일 졸업생 대표, 관계공무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인 농업인대학은 농업인의 영농애로기술 해소와 첨단과학기술과 농업의 접목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딸기수경재배와 한우개량 과정을 개강, 74명의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했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학사과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개별 농가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 1:1 크로스코칭과 SNS를 활용한 비대면

영상교육, 9월 이후에는 온라인 집합 교육을 방역단계에 맞춰 병행 운영해 153시간의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부득이 졸업생 대표만 참석해 약식으로 진행했으나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친 교육에 성실히 참석한 44명의 농업전문가를 양성해 강한 농업군을 만드는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장기간의 교육 참여 및 자치활동에 공로가 많은 학생장 권인수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농업인대학장상에는 서태원, 박현주씨가 공로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권인수 씨는 "올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으로 8개월 간 교육을 진행해준 농업기술센터에 감사드린다"며 "배움의 즐거움과 함께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형식 군수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담양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일자리·기업유치 으뜸 혁신도시 '나주' 사업체·종사자·여성고용·상용노동자 수 증가율 전국 최대

나주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최근 5년 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등이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정책지원' 용역 결과 나주혁신도시는 사업체, 종사자, 여성고용, 상용 노동자 수 증가율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높았다.

10곳 중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종사자 수에 기준한 혁신도시 일반사업장, 이전공공기관 유관업종 관련 종사자의 집적도 수준도 약 4.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혁신도시 건설 이전 비 기반산업이 현재 기반산업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국토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번 용역은 참여정부 이후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미래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했다.

나주혁신도시는 고용의 질, 즉 안정적 일자리 창출 증가와 직결되는 '상용 노동자 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역량 제고 등의 성장동력 부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상용 노동자 수는 2012년 1만 8528명에서 2017년 3만 2447명으로 75.1%(1만 3919명) 증가했다.

총 사업체 수는 2012년 5626개에서 2017년 7633개로 2007년(35.7%)가 늘어나 전국 혁신도시 평균 증가율 13.8%를 훌쩍 뛰어넘으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혁신성장 부문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혁신기반과 지역의 혁신역량 개선에 모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며 "나주혁신도시는 고용증가와 안정적 일자리 증가가 뚜렷하고 지식창출,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주혁신도시 다음으로 충북(29.1%), 부산(8.4%)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업체 증가는 고용 창출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2012년 나주 혁신도시 총 고용수는 2만 8696명에서 2017년 4만 6381명으로 63.6%(1만 8135명) 증가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쏟고 있는 나주시는 현재까지 총 연관기업 391개사를 유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 평균 증가율 2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높았다. 고용증가율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여성 인력의 고용 증가율이다.

이중 혁신산업단지,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유치한 기업은 278개 사이며, 인근 광주 등에서 유치한 기업은 113개사로 집계됐다.

나주혁신도시 내 전체 사업체의 여성 고용 수는 2012년 1만 2403명에서 5년 뒤 1만 8910명으로 52.5%(6507명) 증가해 혁신도시

강인규 시장은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성과는 나주혁신도시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지역성장거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나주혁신도시가 혁신도시 시즌2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 구례군, 구례단감 직거래행사 개최

#### 구례농협과 사랑의교회서 진행...썩부쟁이나물세트도 판매



구례군은 21일 구례농협(조합장 조재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영동대로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에서 구례단감 직거래행사를 가졌다.

구례군과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도 산지에서 생산되는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구례지역 수해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해 '사랑의 밥차'로 나눔 봉사를 진행한 사랑의 교회와 맺은 인연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구례군과 구례농협은 사랑의 교회를 통해 단감과 쌀로 구성된 꾸러미를 서울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행사는 지리산 자락과 섬진강변에서 자라 다른 지역에 비해 당도가 높고 품질과 맛이 뛰어난 구례 단감과 친환경으로 재배한 썩부쟁이나물세트가 판매되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우수한 구례 농산물이 활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직거래행사 추진으로 농가들의 유통활성화와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화순군급식지원센터, 소독관리 프로그램 운영 '호응'

#### 집단 급식소 대상 'Healthy & Safety' 프로그램 운영

화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이승미·이하 센터)는 지난 6월부터 11월 중순까지 'Healthy & Safety 소독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센터는 프로그램 운영 전 해당 시설에 채소·과일용 염소계 소독제, 염소농도 테스트 페이퍼, 용도별 고무장갑을 지원했다.



참여 어린이급식소에 방문자용 가운 세트를 제공해 시설의 만족도를 더 높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급식소의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올바른 소독 교육 동영상 2종을 제작해 배포하고, 조리 종사자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발적인 실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 곡성스태이, 호점별 특색 있는 포토존 조성

곡성군이 곡성을 내에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 '곡성스태이'에 호점별 이색적인 포토존을 조성하였다고 23일 밝혔다.

포토존은 도시청년의 곡성 정착프로젝트인 청춘작당 2기 참여자들의 재능기부로 조성됐다. 곡성군은 관광객들이 시골정취를 느끼면서 덤으로 좋은 추억을 사진으로 담아가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양혜영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